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on the adolescent's social anxiety

최선윤* · 이지민

대경대학 사회복지과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Choi, Sun Yoon · Lee, Ji-Min

Dep. of Social Welfare, Taekyeung College · Dep.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adolescent's sex, grade, birth order on the adolescent's social anxiety. For this purpose, data from 334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were collected.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α , M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of adolescent's social anxiety according to adolescent's sex, grade and birth order. Second, there were not significant effects of adolescent's sex, grade, birth order and maternal depression on three subordinate factors of adolescent's social anxiety, but adolescent's self-este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new), and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general) as subordinate factors of adolescent's social anxiety.

Key Words : maternal depression, adolescent's self-esteem, adolescent's social anxiety

I. 서론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장인 가정에서의 경험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교우관계와 사회적 상황의 폭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행동들을 수행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부모의 심리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서장애를 지닌 부모의 자녀들은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인지적, 학업적인 면에서 손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우울이나 불안장애가 공존하게 되면 자녀 역시 불안장애를 겪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며(McClure et al, 2001), 특히 어머니가 심각하거나 전이되기 쉬운 정신 병

리를 소유할 경우 자녀들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고 사회적 관계 및 상황에서 경험하기 쉬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불안에는 사회불안이 있다. 사회불안은 '친숙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거나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으로 정의된다. 사회불안은 사회공포증, 대인불안, 수줍음 등의 용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공포증에 비해서 다소 경미한 증상으로 간주된다.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발생 비율이 무려 일반 인구의 5-16%의 범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Essau et al, 1999; Hayward et al, 1998), 다른 불안장애나 기분장애와는 대조적으로 평균 15.5세라는 비교적 어

* Corresponding author: Choi, Sun Yoon
Tel: 02) 414-6393, Fax: 02) 560-3429
E-mail: csyhn@hanmail.net

린 나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neier et al, 1992).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La Greca & Lopez, 1998), 사회적 비판주의에 빠지기 쉬우며(Spence et al, 1999), 우울증, 알코올 남용 등과 같은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Essau et al, 1999) 사회불안이 청소년기 적응에 있어 위험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문제 발생에 있어 부모의 정신병리나 가정환경 요소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고해 왔다(호유나, 2004; Bögels et al, 2001; Essau et al, 1999; Hammen et al, 2004; McLean, 2005). 예를 들어, 청소년기의 심각한 가정환경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및 대인관계 결함과 관련되어 있으며(Stark et al, 1993), 부모의 부부갈등과 가족 사회적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사회불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호유나, 2004)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가정환경의 잠재적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불안장애를 나타내는 자녀의 부모들은 불안, 우울, 약물남용 등의 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모의 우울은 자녀의 우울, 불안장애 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Beardslee et al, 1998), 이는 부모의 정신병리가 자녀의 정신 병리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Hammen 등(2004)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은 가족의 불화 및 스트레스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기에 어머니의 우울, 부모의 부정적인 관계, 학대 등의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청소년들은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적게 노출되었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증세가 심하고,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취약하며, 우울과 불안장애를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spejo et al, 2007).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정신병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요소가 중요한 경로가 된다는 점이다(Gershon, 2005). 예를 들면,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만성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Hammen et al, 2003), 우울한 여성은 대인관계 갈등을 더 많이 겪게 되고 이 패턴은 우울한 여성의 자녀에게도 반복된다는 것이다(Adrian & Hammen, 1993). 과거에 우울 병력이 있었던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들이 더 많은 사회적 손상을 보였고,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높은 경우 아동의 사회성이나 사회적 능력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김윤심, 1995; 김지영, 1989; Hammen & Brennan, 2001)은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의 사회불안 문제와의 밀접한 관련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불안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불안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지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신수영, 2001; 정미정, 정현희, 2002; 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Schlenker & Leary, 1982).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수행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준,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역기능적 신념으로 인해 사회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사회불안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으며(Clark & Wells, 1995),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능력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타인의 눈에 비친 사회적 자기상이 매우 부정적이라 믿으며,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Rapee & Heimberg, 1997; Schlenker & Leary, 1982). Coopersmith(1981)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를 주저하고, 매사에 소심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였으며, 조선영 등(2005)은 대인불안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과도한 자의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낮은 자존감과 같은 요인이 증상의 핵심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정승아, 오경자, 2005).

사회불안이 발생, 유지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소들로 자기개념, 자기개념간의 불일치 등에 관한 연구들(김정호, 1999; 문혜신, 2001; 정미정, 정현희, 2002; Weilage & Hope, 1999)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대인관계 문제나 사회불안 및 대인불안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낮을수록 대인불안 수준은 높았으며(김정호, 1999), 자기개념 가운데서도 사회적 자기개념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문혜신, 2001; 정미정, 정현희, 2002). 이러한 결과들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불안 발생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불안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불안장애의 성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나 사회공포증의 발현에 있어서 성차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Turk et al, 1998, 김무경 등, 2005 재인용)고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수행불안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된 결과(호유나, 2005)와, 아동이나 청소년의 대인불안 혹은 사회불안에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결과들(김은향, 2005; La Greca & Lopez, 1998)이

있었다. 반면 문혜신, 오경자(2002)의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Kendler 등(1992)에 의하면 사회불안의 발현은 이란성 쌍생아의 경우 15.3%의 증상 일치율을 보인데 비해 여자 일란성 쌍생아는 24.4%의 일치율을 보임으로써 유전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사회불안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wartz 등(1999)은 유아기에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일반화된 사회불안을 더 많이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차에 따른 사회불안 양상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성차에 따라 사회불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재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른 사회불안 양상을 살펴보면, Rao 등(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더 어린 아동들과 비교할 때 보다 광범위한 두려움과 회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향(2005)은 5학년 아동에 비해 6학년 아동이 일반적 대인불안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대인불안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6학년이 5학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호유나(200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irditt(2002)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긴장의 평가에 있어 연령차를 조사하였는데, 초기 및 중년 성인들이 노인들에 비해 대인관계 긴장에 더욱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불안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영역에 있어 발달적 차이를 보일 것이며, 특히 후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중학교 시기는 사회불안의 평균발병시기로 각 학년에 따라 문제증상에 있어 민감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불안 증상은 출생순위에 의해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외동인 경우, 혹은 첫째인 경우에 더욱 사회불안이나 회피 행동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uss, 1980; Greenberg & Stravynski, 1985, 문혜신, 2001, 재인용). 성영혜와 신귀순(2001)은 출생순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첫째가 인지적 역량과 동정-수용적 대인관계성향을 높게 나타내는데 비해 외동은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출생순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불안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불

안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불안은 청소년기 중기를 기점으로 발생하고 연령 증가에 따라 병리가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연령별로 사회불안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성별, 학년, 출생순위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성별, 학년, 출생순위, 어머니의 우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소재하는 5개의 중학교 1-3학년생들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116(34.7%)명 여자 청소년이 218(65.3%)명이었으며 학년은 중학교 3학년이 123(36.8%)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은 107(32.0%)명, 1학년은 104(31.2%)명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154(46.1%)명, 둘째 이상은 180(53.9%)명이었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42-45세가 186(55.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6-40세가 71(21.3%)명, 46-50세가 65(19.5%)명, 51-60세가 10(3.0%)명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155(4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112(33.5%)명, 대학원 이상이 24(7.2%)명, 전문대졸이 22(6.6%)명, 중졸 1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우울 척도

어머니의 우울 증상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미례(1987)가 번안한 BDI 수정판(Beck, Rush, Shaw, &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총 334명)

변인	구분	빈도	비율(%)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16	34.7	모연령	35세이하	1	.3
	여	218	65.3		36-40세	71	21.3
학년	1학년	104	31.2		41-45세	186	55.7
	2학년	107	32.0		46-50세	65	19.5
	3학년	123	36.8		51-60세	10	3.0
출생순위	첫째	154	46.1		무응답	1	.3
	둘째이상	180	53.9	모학력	무학	1	.3
합계	합계	334	100.0		초등졸	2	.6
					중졸	11	3.3
					고졸	112	33.5
					전문대졸	22	6.6
					대졸	155	46.4
				대학원이상	24	7.2	
				무응답	7	2.1	
				합계	334	100.0	

Emery, 1979)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자가 평정 척도이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4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서술문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각 항목은 우울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0-3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은 0-63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머니 우울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1이었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여주경 (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가치, 만족도, 존중, 자질과 능력 및 자신에 대한 비하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의 수가 각 5개로 총 10문항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0-40점이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3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사회불안 척도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 La Greca & Lopez, 1998)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측

정하는 것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예: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걱정된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예: 나는 사람들이 주위에 몇 명 있으면 긴장한다),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예: 나를 잘 아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수줍음을 탄다)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8-90점까지이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924,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834,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74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27일부터 2007년 10월 29일까지로, 청소년 및 어머니용 질문지를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다. 담임교사의 감독 아래 청소년들에게 설문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청소년이 각 가정으로 가져가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고 완성된 설문지는 다시 청소년을 통해 회수되었다.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58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어머니용 질문지가 누락된 자료와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33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 2> 더미 변수화 내용

학년	더미변수 1	더미변수 2
1학년	0	0
2학년	1	0
3학년	0	1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변인 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출생순위)과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 사회불안의 하위요인(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중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명목척도로 회귀식에 투입하기 위해 더미 변수화하였다. 성별과 출생순위는 두개의 집단으로 그대로 투입하였고 학년의 경우는 1, 2, 3학년의 세 집단이므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또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Tolerance와 VIF값을 산출하였으며 산출한 결과, Tolerance는 .380-1.0 사이로 나타났으며 VIF는 1.047-3.526의 범위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통계치는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불안에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남, 녀),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출생순위(첫째, 둘째이상)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불안(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F값을 계산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3개 하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인 변량분석(MANOVA)를 실시한 결과, Wilk's Lambda ($F=1.656, p>.05$)값을 포함한 모든 다변인 변량분석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성별의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28, p>.05$),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F=.323, p>.05$)과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F=.342, p>.05$)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사회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F값을 계산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3개 하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인 변량분석(MANOVA)를 실시한 결과 또한 Wilk's Lambda ($F=.817, p>.05$)값을 포함한 모든 다변인 변량분석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

<표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사회불안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남	116	15.52	6.27	.631	.428
	여	218	16.13	6.87		
	전체	334	15.92	6.66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남	116	14.04	5.28	.978	.323
	여	218	13.45	5.20		
	전체	334	13.65	5.23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남	116	7.71	3.14	.904	.342
	여	218	7.37	3.11		
	전체	334	7.49	3.12		

* $p<.05$

<표 4>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사회불안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사회불안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학년	104	16.00	6.91	1.529	.218
	2학년	107	15.17	6.67		
	3학년	123	16.71	6.41		
	전체	334	15.92	6.66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1학년	104	13.73	5.27	.823	.440
	2학년	107	13.21	5.43		
	3학년	123	14.09	5.01		
	전체	334	13.65	5.23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1학년	104	7.33	3.10	.593	.553
	2학년	107	7.38	3.25		
	3학년	123	7.76	3.03		
	전체	334	7.49	3.12		

* $p < .05$

불안에 대한 학년의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529, p>.05$),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F=.823, p>.05$)과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F=.593, p>.05$)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F값을 계산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3개 하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출생 순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인 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 Wilk's Lambda ($F=.821, p>.05$)값을 포함한 모든 다변인 변량분석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불안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033, p>.05$),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F=.818, p>.05$)과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F=.017, p>.05$)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출생순위)과 어머니의 우울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출생순위)과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출생순위는 명목척도이나 두 집단이므로 그대로 투입하였으나, 학년은 1, 2, 3학년의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명목척

<표 5>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불안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사회불안	출생순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첫째	180	15.86	6.74	.033	.856
	둘째이상	154	15.99	6.60		
	전체	334	15.92	6.66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첫째	180	13.42	5.27	.818	.367
	둘째이상	154	13.93	5.18		
	전체	334	13.65	5.23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첫째	180	7.51	3.26	.017	.895
	둘째이상	154	7.46	2.96		
	전체	334	7.49	3.12		

* $p < .05$

도이므로 더미 변수화 하여 투입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 <표 7>,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하위 요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약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하위 요인 중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별, 학년, DUM1, DUM2, 출생순위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 변인은 청소년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하위 요인 중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인이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약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별, 학년, DUM1,

<표 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값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성별	.202	.014	.266	.214	12.674*
	학년	.580	.069	1.245		
	DUM1	-1.135	-.075	-.812		
	DUM2	-2.100	-.152	-1.740		
	출생순위	-.001	.000	-.001		
	자아존중감	-.531	-.446	-8.868*		
	어머니우울	.029	.033	.658		

*p<.05

<표 7>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값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성별	-.973	-.089	-1.578	.154	8.454*
	학년	.204	.031	.539		
	DUM1	.515	.043	.452		
	DUM2	-.537	-.049	-.546		
	출생순위	.402	.038	.738		
	자아존중감	-.351	-.375	-7.197*		
	어머니우울	.016	.024	.454		

*p<.05

<표 8>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값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성별	-.640	-.098	-1.742	.158	8.710*
	학년	.136	.035	.600		
	DUM1	.885	.125	1.305		
	DUM2	.159	.025	.272		
	출생순위	-.112	-.018	-.346		
	자아존중감	-.212	-.379	-7.290*		
	어머니우울	.006	.015	.291		

*p<.05

DUM2, 출생순위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 변인은 청소년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불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상담 및 청소년 자녀의 상담에 대한 개입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데 있어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불안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사회공포증 발현이나 사회불안 증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문혜신, 오경자, 2002; Turk et al, 1998)과 일치하지만,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수행불안이 높거나(호유나, 2005), 여자아동이나 여자 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사회불안 혹은 대인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김은향, 2005; La Greca & Lopez, 1998)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기존의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후기 청소년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어린 시기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 받으며 발표를 포함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 훈련받을 기회가 많은 편이므로 사회불안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에 따른 사회불안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사회불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호유나, 2005)와는 일치하나, 아동이나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은향, 2005; Rao et al, 2007)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시기는 사회불안으로 인한 주관적 불편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인지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이자 사회불안 증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현하는 시기로 학년에 상관없이 사회불안 수준이 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불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외동이거나 첫째일 때 사회불안이나 사회적 회

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진 기존 선행연구결과(Buss, 1980; Greenberg & Stravinski, 1985, 문혜신, 2001 재인용)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의 이유는 요즘의 가정은 예전에 비해 자녀수가 적은데다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자녀의 사회성 증진에 주의를 기울이므로 사회불안이 환경적 영향보다는 개인의 기질적 영향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출생순위)과 어머니의 우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청소년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어머니의 우울은 청소년 사회불안의 모든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사회불안의 하위요인 모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을 경험한 자녀들이 우울 및 불안의 공병율이 높다는 결과(Espejo et al, 2007),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높은 경우 자녀의 사회성이나 사회적 능력이 낮고, 과거에 우울병력이 있었던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사회적 손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윤심, 1995; 김지영, 1989; Hammen & Brennan, 2001)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우울 자체보다는 우울한 어머니가 배우자와의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부부갈등과 불화와 같은 요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가져오는(윤혜미, 최문정, 2006) 등 어머니의 우울이 야기한 다른 요소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사회불안이라는 요소는 어머니 우울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우울한 어머니들이 취약한 대인관계 패턴을 보임으로써 자녀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제약을 줌으로 인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요소가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정신병리로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경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Gershon, 2005).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어머니가 어느 정도 우울하더라도 자신의 우울이 자녀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실제 부정적인 영향이 억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문경주, 오경자, 1995).

한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모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불안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결과들(Clark & Wells, 1995;

Coopersmith, 1981)과,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대인불안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김정호, 1999; 조선영 등, 2005)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인식하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는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의 기본적 바탕이 된다(김병태, 1998)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를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향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아존중감의 저하가 청소년의 사회성 문제나 나아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에 있어 새로운 상황과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이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나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감보다 타인의 지각이나 평가에 보다 민감하고 두려운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특성이나 가정환경을 포함한 기질적, 환경적 요소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대구지역 일부 중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 일반화할 수 없다.

둘째,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였고 특히 청소년의 연령이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에 국한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불안의 보다 광범위한 발달적 양상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변인만을 다루었으므로 아버지의 우울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불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의 우울이 매개변인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모의 다른 정신병리나 다양한 문제적 가정환경 변인 등을 포함시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어머니의 우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

의 사회불안

참 고 문 헌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599-614.
- 김병태 (1998)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교육*, 7(1), 172-189.
- 김선희 (2001)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67-76.
- 김윤심 (1995) 어머니의 우울성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향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인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1999) 대학생의 자기개념을 통해 본 사회불안과 우울의 비교.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1989) 어머니의 우울 성향과 그 자녀의 정서적 특성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오경자 (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모·자 상호행동 관찰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41-55.
-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 성영혜, 신귀순 (2001)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가족적응력과 가족결속력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2), 45-63.
- 신수영 (2001) 스트레스 사건, 부적응적인 도식, 자동적 사고와 우울 및 사회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주경 (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혜미, 최문정 (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정미정, 정현희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木村裕 (2005) 한일대학생의 대인불안 규정요인의 비교: 공격자기의식, 자이존 중감, 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12.
- 최미례 (1987) 대학생 우울집단의 정서 일치성 효과와 일시적으로 유도된 정서상태가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호유나 (2004)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rian, C, Hammen, C (1993) Stress exposure and stress generation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2), 354-35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ardslee, WR, Versage, EM, Gladstone, TRG (1998) Children of affectively ill parent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37(11), 1134-1141.
- Birditt, KS (2002)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reactions to interpersonal tensions: The daily experience of arguments and the avoidance of arguments. ph. D. dissertation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Bögels, SM, van Oosten, A, Muris, P, Smulders, D (2001) Familial correlates of social anxie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3), 273-287.
- Breslau, N, Davis, G, Prabucki, K (1988) Depressed mothers as information in family history research - Are they accurate? *Psychiatry Research*, 24, 345-359.
- Clark, DM,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Espejo, EP, Hammen, CL, Connolly, NP, Brennan, PA, Najman, JM, Bor, W (2007) Stress sensitization and adolescent depressive severity as a function of childhood adversity: A link to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2), 287-299.
- Essau, CA, Conradt, J, Petermann, F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9), 831-843.
- Gershon, A (2005) Interpersonal stress and the onset of psychiatric disorders among daughters of depressed mothers. ph. D. dissertation thesis, Stanford University.
- Hammen, C, Brennan, PA (2001) Depressed adolescents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Tests of an interpersonal impairment hypothe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2), 284-294.
- Hammen, C, Brennan, PA, Shih, JH (2004) Family discord and stress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other discords in adolescent children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wom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3(8), 994-1002.
- Hammen, C, Shih, J, Altman, T, Brennan, PA (2003) Interpersonal impairment and the predic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children of depression and nondepressed moth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5), 571-577.
- Hayward, C, Killen, JD, Kraemer, HC, Taylor, C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12), 1308-1316.
- Kendler, KS, Neale, MC, Kessler, RC, Heath, AC, Eaves, LJ (1992) The genetic epidemiology of phobias in women: The interrelationship of agoraphobia, social phobia, situational phobia, and simple phobia.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273-281.
- La Greca, AM,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McLean, AG (2005) Perceive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anxiety in mid-adolescents. ph. D. dissertation thesis, Hofstra University, Hempstead, NY.
- Miller, SA (1995) Parent'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Development*, 66, 1557-1584.
- Rao, PA, Beidel, DC, Turner, SM, Ammerman, RT, Crosby, LE, Sallee, FR (2007)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Descriptive psychopatholog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6), 1181-1191.
- Rapee, RM, Heimberg, RG (1997) A model of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740-756.
- Schlenker, BR, Leary, MR (1982) Social anxiety and

- 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 Schwartz, CE, Snidman, N,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1008-1015.
- Spence, SH, Donovan, C, Brechman-Toussaint, M (1999) Social skills, social outcomes, and cognitive features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211-221.
- Stark, KD, Humphrey, LL, Laurent, J, Livingston, R (1993) Cognitive, behavioral, and family factors in the differentiation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during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5), 878-886.
- Turk, CL, Heimberg, RG, Orsillo, SM, Holt, CS, Gitow, A, Street, LL, Schneier, FR, Liebowitz, MR (1998) An Investig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3), 209-224.
- Weilage, M, Hope, DA (1999) Self discrepancy in social phobia: a case se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713-720.
- (2008. 7. 22 접수; 2008. 9. 30 채택)